

플라즈마 연구 신기술단지 집중 육성

강원도, 철원에 종합연구단지 설립 추진 ... 2008년까지 540억원 투자

강원도가 철원군과 공동으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어 플라즈마(Plasma)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김진선 강원도 지사는 4월28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철원군에 플라즈마 종합연구단지 및 신기술 산업단지를 건설키로 하고 2억원을 들여 2004년 말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시도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연구단지를 설립하고 전자빔응용연구개발센터, 카프라 물리기술 연구소,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 극 초정밀 공작실 등을 단계별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적극 유치해 우선 입주할 희망하는 곳은 김화농공단지에 수용하고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공장 터를 위해 신기술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플라즈마산업을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중앙부처에 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경시도는 이를 위해 도와 철원군, 강원개발공사 등에서 13명이 참여하는 철원 플라즈마신기술연구단지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 5월1일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또 현재 철원군 서면 옛 송동분교에 유치한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의 연구환경을 개선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6억원을 들여 990평방미터 규모로 연구실과 자료실을 갖춘 연구동을 2005년까지 신축키로 했다.

강원도의 플라즈마산업 조성계획은 1단계로 플라즈마 응용기술개발 및 산업단지육성을 위한 실습훈련센터 등 토대 마련을 위해 2008년까지 540억원을 투자하고 33만평방미터의 플라즈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철원을 첨단과학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플라즈마는 기체로부터 이온을 발생시키는 제4의 물질로 플라즈마 기술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산업,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신지식 산업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4/29>